원자력과 한국 여성

나 소 원
(사)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총재

여러분,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9회 한 · 일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에서 『원자력과 한국 여성』에 대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0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프리데 옐리네크는 수상작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국가와 가정에서 만장일치로 공인된 이름이며 그 지위는 종교 재판장의 심문권과 총살 집행자의 명령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한국 여성은 총살권같은 무서운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원자력과 닮은 곳이 많습니다.

한국여성은 원자력 불꽃처럼 대단히 적극적이고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원자력 못지않게 강열합니다만,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원자력을 닮아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순수한 모성을 정성껏 발휘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우먼파워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단단합니다. 정치 · 경제 · 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남성들과 앞다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은 남성이 여성을 절대 지배하는 가부장 제도 속에서 여성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보다 아내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끓여 바쳐야 하는 남성 수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조크도 합니다.

이렇듯 대단한 우먼파워를 불러일으킨 한국 여성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 교육을 이수한 한국 여성들은 원자력 에너지는 무공해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에너지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발전 분야에서 암의 조기 진단과 암 치료 등 원자력이 여성들의 유방암과 자궁암을 지켜주는 생명의 지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 없이는

문화 생활도 경제 생활도 건강 관리도 불가능한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고 에너지는 바로 국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한국 여성에 대한 함수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본인이 총재를 맡고 있는 (사)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의 사업과 활동을 예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은 국제WIN의 회원 단체이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가입된 NGO입니다. 1998년 4월 22일 제3회 세계 WIN 연차대회에서 공로 표창을 수상했고 2000년 9월 6일 대통령단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여성모임의 탄생은 1994년 12월 이곳 부산에서 그 첫 깃발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현재의 회원 수는 1만여명으로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① 각계 각층 초청, 발전소 시찰 및 연찬회 개최
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육
③ 자체 교육을 통한 원자력 홍보 요원 양성
④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해시키는 가두 캠페인
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시민 연찬회 및 가두 캠페인
⑥ 홍보물 제작 무료 배부
⑦ 원자력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참여 및 원자력에 대한 지식 연마

그 밖에도 해외 원자력 시설 시찰과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성명서도 발표하여 반원자력 계층 집단 시위를 진화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환경 보호 운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회원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들도 함께 생활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② 물 아끼기 운동
③ 에너지 절약 운동
④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가용 운행 줄이기
⑤ 푸른 하늘 지키기와 맑은 물 지키기 운동

그리고 아래와 같은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원자력여성모임의 발길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사랑의 손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1일 찻집 운영, 과학도 장학금 전달
② 독거노인 돕기
③ 각 대학 학회 후원
④ 바자회 개최, 부산국제영화제 1억5천만원 성금 전달, 국제영화제 빛 탕감
⑤ 각종 문화 행사 후원

다음은 고리원자력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불꽃 속에서 거대한 은막의 나래를 펼치고 하늘로 치솟는 그 뜨거운 열기는 바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여 보내주는 원자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개막식에 참석한 6천여 명의 관객들은 그 찬란한 은막의 축제가 바로 원자력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문 기사로 그 모든 영광이 원자력 덕분이라는 말 한마디 없어서 유감이었습니다. 그 고마운 원자력의 은혜에 대하여 외롭지만 우리끼리만이라도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2007 부산국제영화제는 너무나도 장엄하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10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64개국 271편의 영화가 총770회 걸쳐 상영되었으며, 관객 수 총 198,603명, 좌석수 261,948석으로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총7,361명에 달하는 국내외 게스트와 프레스가 올해 영화제를 찾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께 축하드릴 일은 폐막작으로 일본의 에니메이션 영화 「에반게리온 序(서)」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PPP와 BIFCOM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 필림 마켓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는 부산아시아 단편 영화제 창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본직이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국제영화제에서는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일본의 주간 신조의 기자들과 우리원자력여성모임 부산회원들과의 간담회가 바로 이곳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기자분들이 우리 원자력여성모임을 가리켜 세계에서 하나뿐인 부러운 모임이라고 격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1994년도와 1996년도 스미도모 미쓰비시 도시바에 근무하는 원자력 담당 박사님들과도 이곳 부산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부산은 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관광 도시, 온천 도시이기도 합니다. 청정 해역인 한려수도에서 낚시로 낚은 사시미는 여러분들을 10년은 젊게 해 줄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직경 500m나 되는 불꽃이 화려하게 하늘 높이 수놓았던 부산 불꽃축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관람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29회 한 · 일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 개회 세션(10. 29)

그 밖에도 국제 락페스티발, 국제 바다무용제, 바다축제, 비엔날레 등등 일년 내내 문화행사로 장식되는 문화 도시 부산입니다.

한편 매년 10월 중순에 한 · 일 합동으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행사도 올해는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원자력여성모임 부산 부회장이 한국의 궁중 의상 고전 의상 등으로 패션쇼를 열어 일본분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원자력여성모임 회원들은 문화 교육 봉사 환경 보호 운동 등등 각계 각층에 몸을 담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보이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모쪼록 아름다운 관심 속에서 원자력 불꽃과 같은 뜨거운 우정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가 되어 훨훨 타올라 양국 간의 문화와 사랑이 교류되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 푸른 바다 깊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우정의 닻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